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hree shipowners lined up for Shell's LNG-fuelled VLCCs at DSME

대우조선해양이 2월 중으로 3개의 선주로부터 LNG-fuelled VLCC 10척에 대한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터키의 Advantage Tankers와 4척, 미국의 International Seaways와 3척, 말레이시아의 AET와 3척을 각각 계약 체결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약 1억달러로 이중연료추진시스템에 대해 1,500만달러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Significant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S&P Global Ratings(S&P)는 Shell, ExxonMobil, Chevron, Total 등 9개의 주요 Oil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Oil 업체들의 투자가 중단되거나 '신재생사업부의 분사(spun-off)' 같은 대안이 떠올 수도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2.6bn deal: BP sells down stake in giant Oman tight gas project to Thai playe

영국의 슈퍼메이저 BP사는 Oman의 Block 61 지역의 tight gas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20%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BP사는 태국의 PTT Exploration & Production(PTTEP)사에 지분을 매각하며 매각 규모는 25.9억달러라고 보도됨. BP사는 2025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divestment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석유화학사업부에서 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됨. (Upstream)

한진중공업, 3D 4D 물리탐사연구선 수주

한진중공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한 최첨단 3D 4D 물리탐사연구선을 수주했다고 밝힘. 해당 선박은 극지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에너지 자원과 해양단층을 조사할 수 있는 선박이며, 수주금액은 1,677억원으로 2024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제2의 스크러버 붐 오나?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사이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스프레드는 톤 당 80~100달러까지 벌어지며 2020년 4~11월 사이에 톤 당 40~60달러 수준 대비 확대됐다고 보도됨. 현재 스크러버 제조사와 선주들 간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LNG선 운송사고, 조선사 배상의무 없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LNG선운반 사고에 대한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일단락 됐다고 보도됨. 2017년 SK해운은 멤브레인 두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삼성중공업과 선박설계를 담당한 A회사에 220억원 가량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됨. (선박뉴스)